

유튜브서 익산 일자리 정책 소개

익산 버튜버 '서동' -사람인 '라히', 합동방송 공개... 창업·취업하기 좋은 익산 홍보

익산시 공무원 버튜버 서동이 고용 플랫폼 기업(주)사람인과 손을 잡고 익산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소개했다.

익산시는 서동이(주)사람인 유튜브 채널 404오피스의 버튜버 '라히'와 함께 익산의 청년 취업·창업에 주제로 한 합동 방송을 진행했다. 해당 영상은 21일 익산시 공식 유튜브 채널과 서동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익산시 공무원 버튜버 서동이 고용 플랫폼 기업(주)사람인과 손을 잡고 익산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소개했다.

서동은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도 하고, 공무원 만나 싶은 정도로 거침없는 입담을 선보이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홍바사 켈링'을 패러디해 미특사지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을 홍보하거나 보물찾기 축제와 왕궁리 유적지에 대한 재치 있는 설명으로 흥미를 유발하는 식이다. 영상 평균 조회 수는 1만 회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젊은 세대를 겨냥해 탄생한 버튜버 서동이 채용 전문 기업

사람인과 함께 익산에 일자리 정책을 전국에 홍보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서동을 활용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콘텐츠를 통해 익산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문화도시지원센터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재치있게 홍보하고 기존 방식을 탈피한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지역의 역사문화 캐릭터 서동을 유튜브로 재탄생시켰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짬뽕특화거리, 타지자체 벤치마킹 성시

작년 군산짬뽕페스티벌 성공 '입소문'... 양산시·거제시 등 방문



전국적으로 유명한 군산의 대표음식 중 하나인 '군산짬뽕'을 특화시킨 군산짬뽕특화거리가 다른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장소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군산의 대표음식 중 하나인 '군산짬뽕'을 특화시킨 군산짬뽕특화거리가 다른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장소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짬뽕특화사업은 강임준 군산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지난 2018년 농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공모해 국가예산을 받아 추진된 사업이다. 사업 초기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현재까지 기존 업소 2개소(빈해원, 흥영장)를 포함해 10개소의 짬뽕 취급업소가 입점해 있으며 카페 5개소, 분식집 2개소, 기타 2개소 등 짬뽕업소를 방문하고 그 이후에도 즐길 수 있는 편

의시설이 입점하는 등 소외되고, 침체됐던 구도심이 재생돼 그 빛을 받고 있다.

특히, 2023년 군산짬뽕페스티벌의 성공적 개최로 전국에 군산짬뽕의 맛과 짬뽕특화거리의 이런 성공적 사례가 입소문을 타고 전국 지자체에 알려져 특화된 거리의 변해가는 모습과 과정을 벤치마킹하고자 지자체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에는 가까운 익산시를 비롯해 경남의 양산시가 연속으로 특화거리 및 위생시책 정보교류 목적 방문했다.

최근 거제시 100년 거제디자인추진단 25명을 인솔해 방문한 거제시장은 군산과 거제는 비슷한 환경이라며 "두 지자체의 발전과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자"고 제안했으며 강 시장도 "여기에 앞으로 두 지역간 발전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진숙자 위생행정과장은 "벤치마킹을 위한 타지자체의 방문을 기회로 군산짬뽕의 우수성과 군산짬뽕특화거리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익산시, 소상공인 실태조사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익산시는 '소상공인 실태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지난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보고회는 정한을 시장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시의원 및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용역은 소상공인의 실태를 파악하여 익산시 환경에 맞는 맞춤형 소상공인 정책 수립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용역 수행업체인 유니온리서치에서는 현장방문을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익산지역 소상공인 사업체 1,000개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규모가 유사한 타 시군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익산시 소상공인의 특성을 파악했다.

익산시 소상공인의 주요 특징은 50대 이상 고령층 사업자와 1인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50세 이상 소상공인 대표자를 중심으로 세대, 기술, 산업 등을 연계한 다양한 사업들이 모색됐다.

50대 대표들의 노하우를 청년 창업자에게 전수하는 세대융합 공동지원



사업,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비 지원, 스마트기기 지원사업, 1인 소상공인 협업지원 사업, 음식 특화거리 등 테마거리 조성사업이 제시됐다.

시는 이러한 사업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에 더욱 매진할 방침이다.

정한을 익산시장은 "이번 용역은 지역경제의 뿌리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라며 "오늘 보고회에서 제시된 사업은 향후 유관기관과 협의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경찰서 부설주차장을 시민의 품에'

익산시·익산경찰서, 부설주차장 개방 협약

정한을 익산시장과 김종신 익산경찰서장은 지난 24일 익산시청 회의실에서 도심지역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익산경찰서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익산경찰서는 청사 건물 주변을 제외한 출입구 일대 주차장 143면을 평일 오후 6시30분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토·일·공휴일은 자정부터 24시간까지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시는 경찰서 출입 보안

지침 규정에 따라 개방주차장 일부 구간에 관계시스템을 연내 설치할 예정이며, 주말에 일부 개방했던 경찰서 부설주차장 관계시스템이 설치되면 평일까지 개방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경찰서 주차장과 연계해 보훈공원(모현동1가 916번지) 내 산책로를 조성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모현동 신시가지와 경찰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도심 숲 휴식 공간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

군산시, 12월 중 0시~오전 6시 시범 무인운영 예정

군산시는 지난 9월부터 시작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을 연말에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상습 밤샘 주차 구역을 집중단속한 결과 총 161건을 단속했다. 이 중 과징금 처분 관내 59건, 관외 90건이며, 계도 및 경고 12건을 처리했다.

시는 집중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밤샘 주차가 자행되고 있는 지역은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

며, 상습 지역을 피해 주차하는 지역도 예외 없이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주거밀집지역, 교통사고 발생 위험 지역, 민원 다발 지역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화물 자동차다.

또한, 시는 지난해 4월 개관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외항로 619)'의 시 간대별 이용률에 따른 효율적 운영계획을 다시 수립하고자 무인운영 시간대를 12월 중 시범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 통

익산시·한국농수산대

청년농업인 육성 '합심'

익산시는 지난 24일 농업인재 전문 양성기관인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한을 익산시장, 정현출 한국농수산대 총장, 채철주 교육개발센터장, 이지훈 졸업생 대표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농업분야 인력구성과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젊고 유능한 청년들의 유입과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농수산대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을 위한 현장교육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문농업기술 및 건설링 지원협력,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개발 및 정보 상호교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뜨뜨가무시증 환자 급증

야외 진드기 주의 당부

군산시 보건소는 최근 군산에서 뜨뜨가무시증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예방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올해 발생한 뜨뜨가무시증 환자는 15명이며 이 중 73.3%인 11명이 1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뜨뜨가무시증은 3급 법정감염병으로 뜨뜨가무시균을 보유한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후 발생하고 물린 자리에 검은 딱지가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증상은 발열, 오한, 근육통, 두통, 발진 등이 나타나며, 치명률은 국내에서 0.1~0.3%로 높지 않으나, 증상의 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농작업이나 산 또는 숲에서 활동 시 긴팔, 긴바지, 장갑, 목수건 등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기, 농작업 중에는 농작업용 방석 사용하기, 풀밭에 앉을 때는 돛자리 사용하기, 귀가 즉시 옷을 털어서 세탁하고 몸 전체를 꼼꼼하게 씻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